中東 紀行文 (2)

인샬라, 부꾸라, 슈꾸라, 할라스

曺 鐵 鎬

아랍사람들의 음식은 고기류등을 많이 먹는다는 것을 그들과 처음 식사에서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양의 닭고기, 양고기, 소고기를 얇은 빵껍질 같은 것으로 싸서 먹고, 배추같은 야채를 생것으로 먹는다. 우리가 닭다리 하나와 소고기 조금을 10여분에 다 먹고는 점심의 양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끝냈는데 그들은 우리의 4~5배를 먹어 치우는 것으로 보아 한국축구의 체력을 생각해 볼 정도였다. 하기야 법적으로 부인을 4사람(?)까지 둘수 있기에 많이 먹어야 하겠지만 먹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은 감을 주었다. 오이로 소금에 절인 것은 한국의 '오이지'와 동일한 것이라 퍽 반가웠다. 한국을 다녀 간 적이 있는 한 아랍인이 이것이 아랍의 김치라고 이야기했다.

양고기같은 고기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서양사람처럼 몸에 노린내가 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많이 먹는 탓인지는 몰라도 이 곳 여자들은 12살이상만 되면 가슴이 풍만해져 보기가 좋았지만 18세 전후의 처녀들은 유방이 너무 커서 겁에 질릴 정도였으며 기혼여성은 몸이 비대해서 우리들 눈을 즐겁게 하지 못했다. 언제인가 나이가 많으신 선배님이 결론내린 머리가 좋은 여자는 가슴이 적고 머리가 나쁜 여자는 유방이 크다는 말이 생각나서 그렇게 물었더니 한 아랍인은 아랍여자는 자연적으로 그런 것 같고 자기도 유방이 중간쯤 알맞는 여자가 좋다고 했다.

머리가 좋은 여자일 수록 유방이 작다는 이야기가 맞는지 survey해 본 적은 없었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았다. 지난달 일본 여행중 테레비에서 본 유방크기 콘테스트가 생각난다. 유방이 큰 여자가 참피온이 되었는데 유방사이에 맥주병을 실로 매여 흔들며 유방을 과시한 18세 정도의 일본 처녀는 아나운서의 질문에 수줍어 하는 것을 보고 머리가 나쁜지 확인해 볼 길은 없었다. 어쨌던 한국 여성들의 유방의 크기가 가장 알맞고 예쁘다고 생각해 보았다.

레바논의 여자들은 다른 아랍국과는 달리 얼굴을 내 놓고 다닌다 오똑한 코와 푹 들어간 눈이 서구인의인상을 풍긴다.

베이루트에는 비가 잘 오지 않는다고한다. 겨울이라야 비가 좀 올 정도다. 그런데 비가 왔다. 동행한 사람에게 『저는 용띠라서 어디든 가면 비가 잘 온다』고 했더니 『그래서 비가 오는 모양이지? 조형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가면 국보로 모시겠어. 비가 자주 올테니까…』해서 웃었다. 소나기같은 비가 바람을 타고 호텔방 창문을 심하게 때렸다.

전날 방문했던 한국통상부의 정공사님은 퍽 친절하셨으며 김참사관이며 통상부직원은 아주 친절해서 기분이 좋았다. 김참사관으로 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자기 집에 저녁을 초대할테니 오라는 것이였다. 우중에 몰고 온 차에 큰 아들(중학 2년)이 함께 타고 왔다. 비속을 뚫고 김참사관이 사는 집에 도달했을 때 비는 좀 멎었다. 정성들여 차린 된장찌게와 김치에 우리는 한국의 맛을 보느라 밥을 두 그릇이나 먹었다. 쌀이 알랑미라 한국에서의 밥맛은 아니였지만 된장찌게맛에 맛있게 저녁을 들었다. 다시 호텔까지 직접 차를 몰고 보내준 김참사관의 친절은 지금도 잊지를 못 한다. 어린애들은 미국인 학교에 보내느라 학비가 많이 든다고 걱정을 했었다. 몇

년에 한번씩 나라를 옮겨야 해서 자녀들 교육문제가 걱정이다는 말에, 나라를 위해 각 분야에서 애쓰는 사람들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렸다. 외화획득을 위해 노력하는 무역진흥공사의 파견원이며 각 종합상사의 주재원들은 열심히 뛰었으며 우수했다. 77년의 100억불 수출완성이 이러한 한사람의 노고의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노고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베이루트는 아직 전쟁 피해 복구가 이루어 지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태였기에 돈이 많은 사람은 외국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며 JAL도 취항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본사람들이 아직 평상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77년 10월에도 레바논 남부에 이스라엘이 침공한 사건이 있었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아침에 배달된 신문에 78년 3월 11일 소련기관단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산하 아랍 테러단이 하이파만에서 수도 텔아비브를 연결하는 해변고속도로상에서 이스라엘人 관광객들이 탄 관광버스를 무력납치 텔아비브로 질주하다가 이스라엘 군경과 치열한 총격전을 벌인끝에 승객 최소 37명이 죽고 82명이 부상하는 건국 30년 사상 최악의 유혈 테러기습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사(한국일보 3월14일)와 이스라엘은 15일 베이루트인근의 팔레스타인 게릴라 기지들을 육·해·공 3면에서 대대적으로 공격, 중동사태를 제 5차 아랍—이스라엘 전면 전쟁 촉발직전의 위기로 몰아갔다. 이스라엘은 이날 새벽부터 탱크및 전폭기의 지원 아래 약 2만명의 병력을 투입 약 100 km의 선형전선을 형성하며 레바논 남부국경으로 부터 레바논 중심부를 향해 일제히 진격, 5개의 팔레스타인게릴라 요새를 분쇄했으며 이날 정오부터는 베이루트시로부터 3km떨어진 거리의 교외에 있는 팔레스타인 기지를 비롯 3개의 기지를 공격폭격했다는 기사(한국일보 3월 16일자)를 보고 베이루트에 있는 한국통상부를 비롯한 종합청사 주재원및 가족의 피해를 걱정했다. 레바논 남부에 공격이 있었던 77년 10월과 78년 3월의 중간지점인 77년 12월에 필자가 방문한 베이루트가 눈에 선하다. 동행했던 한국분은 74년 레바논사태에 호텔에서 있다가 사태가 일어나 10여일을 호텔에 갇혀 겨우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외국에서 근무하는 주재원들의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 본다.

레바논 사람들도 아랍과 마찬가지로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개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것 같았다.

따라서 우체국의 편지 분류의 시간이 너무 걸려 국제우편의 배달 속도는 분류하는데 5일 베이루트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로 가는 5일정도 걸려 10~12일이면 배달 된다는 것이다.

2부제로 분류 배달하는 한국 우체국 직원들의 노고가 생각났으며 편지분류도 기계로 자동화하는 방안이 빨리

채택되어 신속 배달과 편리한 문명의 혜택을 받아 해외에 수출도 가능하리라 생각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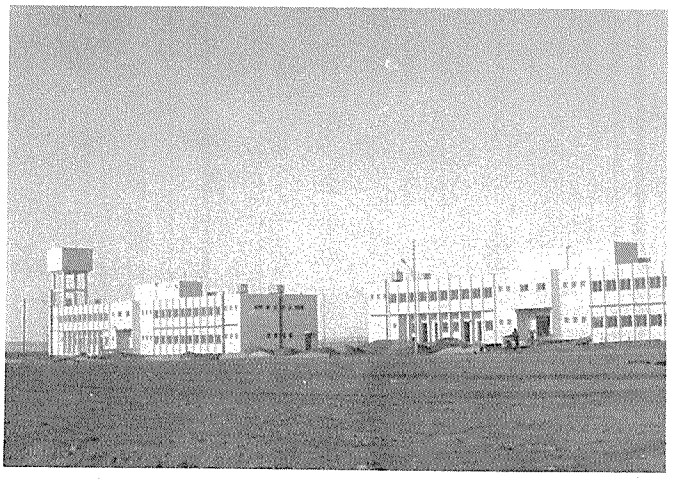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의 베이루트에 돌아온 레바논 사람들은 무역상을 차려 여러가지 무역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었으며 한국인에게는 건설공사를 소개해서 3% 정도의 소개료를 받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베이루트 해변 북방 야산에 시멘트공장을 짓겠다는 한 아랍 사기꾼 같은 무역상의 부탁으로 현장을 돌아 보고 가능성이 없음을 판단했다. 또 그리스에서 온 사람이 욜단에 광산공사
가 있어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한국 어느 시공회사에서 참여해 달라는 부탁에 우리는 12월24일 욜단의 암만으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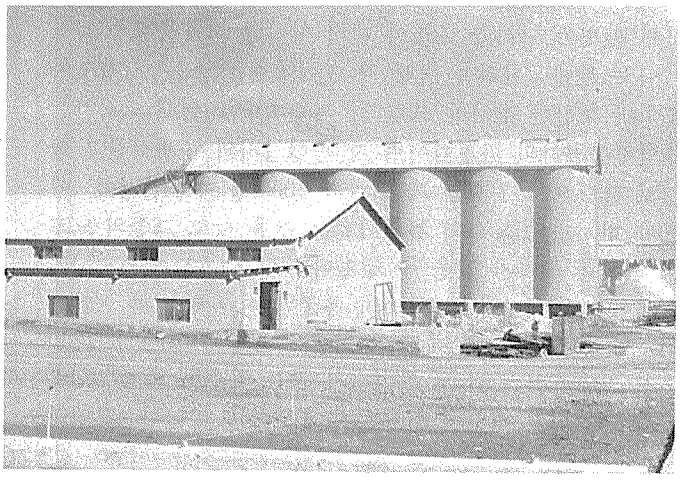
세계여행 가이드에 소개된 욜단에 관한 상식은 다음과 같다.

욜 단

1차 대전후 터키의 지배를 벗어나 영국의 위임 통치령이 되었다가 1929년 영국의 보호하에 프랑스·요르단 왕국이 세워졌으며 1946년 3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북으로 시리아, 동북으로는 이란, 동남은 사우디아라비아, 서쪽은 이스라엘 접경, 요르단 강 서쪽 유역은 현재 이스라엘에 점령되어 있다.

국토의 동쪽은 사막이고, 사해와 욜단강 근처만이 비옥한 농토가 펼쳐져 있다. 서부는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인데, 겨울철의 강우량도 900mm로서 농경에 적합하다. 그러나 욜단 계곡지대의 강우량은 적고, 남부는 여름철에 혹서가 계속된다. 대부분의 국민이 순니파의 이슬람교 신자이며, 기독교 신자는 전인구의 5%정도, 농업 이외의 산업은 광공업 12%, 건설업 6%, 운수업 9%, 상업 17% 서어비스업 10%이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며, 1967년 이래 9년의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으나 문맹율은 60~66%이다.





○여행안내

○입·출국

여권·비자신청서및 수수료를 준비하여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자의 유효 기간은 6개월이다.

○교통

욜단의 유일한 항구인 아코바(Aqaba)는 홍해에 면해 있는데, 대부분의 수입품은 이곳을 통과하게끔 지정되어 있다. 철도는 총연장 366km이고, 도로는 주요 도시 사이에 잘 연결되어 있다.

○관광

수도 암만(Ammam)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이라고' 불리며, 조용하고 따뜻한 내륙에 있다. 제라시는 암만으로 부터 북방 50km에 있는데, 로마시대에 가장 번창했던 도시이며 개선문과 주피터 신전 등의 고적이 있다. 해저 392m의 염호인 사해는 아름다운 호수로서 피한지지만,이스라엘과 욜단의 국경선이다.

○휴일

1월11일 : 이슬람력 신정(Islamic Mew Year)
3월23일 : 마호멧 탄신일
5월25일 : 독립 기념일
8월11일 : 후세인 왕 즉위 기념일
10월 3일 : 이드 알 피트르(Id al Fitr)
11월14일 : 후세인 왕 탄신일

※정부기관과 일부기업체들은 아래의 날에도 휴무한다.

1월15일 : 식목일
3월 8일 : 파이잘 왕 대관 기념일
3월22일 : 아랍 연맹의 날.
5월 1일 : 노동절

※매주 금요일은 정기 휴일이다.

◎암만 Ammam

아라비아 반도 북서부에 위치하는 친서방적인 독립 왕국 욜단의 수도 사해로 흐르는 욜단강 어귀에서 동쪽으로 약30km쯤 떨어져 있다.

동 로마 제국 시대에 지방수도로 번성한 오랜 역사의 도시인 이곳거리의 건물들은 대부분 석조로 비잔틴 양식의 교회, 욕장, 극장, 사원등의 유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있다. 특히 교외로 나가면 기원전 2세기 경의 폐허인 로마의 유적 젤시에서 이오니아 식의 열주와도로 등에서 로마의 영향을 받은 흔적을 엿볼수 있다. 성서에 라바(Rapha) 암만의 이름으로 기록된 이 도시는 그리스인의 지배하에는 필라델피아라 불렸고, 지금은 욜단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욜단대학이 있다.

○교통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3마일의 거리로 버스는 없고 택시요금은 1달러60센트 정도로 공항에 늘 대기하고 있어 쉽게 이용할수 있다.

○관광

암만에서 남으로 뻗는 사막 가운데 난 '사막의 길(The road of desert)'은 모세가 죽은 느보산(Mt. Nebo) 에서 무희 살로메가 왕을 꾀어세례요한의 목을 자른 마세론 땅 헤롯 왕성으로 통하고 있다.

○호텔 〈단위 : 달러〉

	1인용	2인용
Al Cazar	10.00~15.00	15.00~20.00
Amman Club	17.00~23.00	23.00~30.00
Continental	15.00~18.00	18.00~24.00
Granada	7.00~12.00	10.00~15.00
Grand Palace	13.00~20.00	21.00~28.00

필자가 욘단 인터콘티넨탈 호텔의 싱글 룸을 사용하는데 60달라가 소요된것으로 보아 위에 소개는 호텔 가격이 현시세의 4분지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슈꾸라!

아랍사람들은 미국사람이 탱큐를 연발할 정도로 『슈꾸라』를 연발한다. 고맙다는 아랍어다.

그들은 남자끼리라도 친한 사이는 서로 볼에 키스를 하고 이마에도 쪽쪽 키스를 음악적으로 한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가만히 관찰하고 있으면 퍽 재미가 있다.

욜단을 향하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우리 일행은 욜단의 해외 수주를 위한 한국건설회사측에 한사람, 그리스에 온 무역상을 하는 파레스타인 한사람, 베이루트에서 법과를 전공한 무역상의 직원 한사람 그리고 필자 4사람이였다. 그리스에 온 사람은 회사명이 KIMCO여서, 한국회사로 보이는 이름이라했더니 잘 알고 있다고, 한국에는 金氏 李氏성이 많다는 것을 한국 방문으로 알고 있었다 한다.

그리스를 떠날 때 부인이 빈 가방을 하나 사 주면서 전부 채워오라는 말을해서 우리 일행은 웃었다.

욜단 암만에 사는 장인에게 준다고 양담배 4갑을 사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는 욜단에 가서 돌려 달라는 것이다. 욜단 암만공항에서 담배가 많으면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쿠에이트에서 레바논으로 올 때 한 5일만 체류할 예정이였기에 간단히 손가방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 짐은 쿠에이트빌라에 두고 왔기에 짐은 적어 편했지만 갈아입을 옷이 없어 약간 불편했다. 욜단으로 향하는 MEA는 밤공기를 타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우리를 실어다 주었다.

군야전 잠바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나와 있어서 군인들로 착각했었다. 짐을 조사하는 것은 김포공항보다 더 심했다. 공항을 빠져 나갔더니 서울에서 보기 힘든 벤즈 자동차가 즐비하다. 택시가 모두 벤즈였다.

운전사역시 군야전잠바를 입고 있었다. 암만에서 제일 좋다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 묵기 위해 도착했더니 운 좋게 방이 4개 남아 있어서 우리는 모두 일제히 『인샬라』라고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예루살림과 요단강이 가까운 욜단에서 지낸다는 것이 퍽 의의가 있는 일이였지만 우리는 관광을 온 일행이 아니였기에 충분한 시간을 얻지 못했다. 사실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것도 해외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라 가족에게 퍽 미안했다. 해외에 진출한 해외건설업체나 수출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한국인이 이러한 뜻있는 날에 느끼는 향수감과 애국심은 함께 느낄 수 있었다. 호텔에서 밤 12시에 서울 우리 집과 통화가 되도록 신청을 해두었다. 시간차가 7시간이라 그때쯤 서울은 새벽 7시가 되어 크리스마스는 서울에 있는 사람보다 7시간을 늦게 맞는 셈이다.

징글 벨이 울리는 욜단의 호텔은 사람의 기분을 이상하게 만들었다. 그리스에서 온 사람은 지금 쯤 부인이 화를 내고 있겠다고 걱정하는 품으로 보아 공처가인 모양이다.

다음날 우리는 광산 공사를 하는 현장으로 향했다. 호텔에서 만들어 준 점심을 준비해서 차에 실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석유도 나지 않는 욜단은 황폐한 땅이였음을 알았다. 고속도로라는 것은 한국의 고속도로에 비하면 국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기차를 이용하기 보다는 비행기를 잘 이용하고 있다 한다. 욤단에 비하면 정말 한국은 금수강산이다.

날씨가 일본 날씨와 비슷하여 中東에서는 시원한 편이였다. 벤즈가 많은 이유는 유럽에서 쓰고 남은 폐차할 차를 인수 받은 것이라 한다. 집이며 옷을 미루어 우리나라보다는 훨신 못 사는 나라라는 것이 확인될 정도로 꼭 6·25이후 자유당 시절의 군복을 입는 민간인 처럼 보인다.

오는 길에 지질조사를 하는 현장을 볼 수 있었다. 먼지가 많았다.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도나 파키스탄 사람들이라 한다.

점심시간에 나무가 조금 있는 공장근무사원 사택이 있는 벌판에서 차를 세워놓고 점심식사를 서서 했다. 바람이 몹시 불어 추웠다. 닭고기와 양고기 오이지 껍질같은 빵이며 올리버, 삶은 달걀, 콜라, 사과, 바나나가 점식식사의 대부분이였다. 서울에서의 도시락이 생각난다.

점심을 끝내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한국인건설회사에 건설하는 현장을 찾아 갔다. 현장소장이 친구여서 깜짝 놀라게 하려고 예고없이 찾아 갔다. 가보았더니 크리스마스로 모두 쉬고 한국인 두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현장소장은 암만시내로 들어 갔다는 것이다. 메모를 해두고 왔다. 해외에서 건설한 건물이 깨끗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친구인 현장소장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대사관에서 노무관이 이야기해서 알았다는 것이다. 대사관에서 거만했던 한 직원이 생각난다. 혹 현장소장으로 있는 아무개를 모르느냐고 했더니 현장소장 정도를 파악해 두어야 하느냐고 화를 내어 놀라게 했다. 자기보다 월급이 훨신 많은 현장소장이 자기 보다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그 직원 정말 한심했다. 알아 보았더니 월급이 적다고 부인에게 늘 야단을 맞아 머리에 좀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한다. 대사관에는 각 해외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명단과 카드를 비치하여 파악해 주었으면 좋겠다 고 생각했다. 기분이별로 좋지않아 옆방 노무관을 만났더니 퍽 친절했다. 화낸 직원은 해외에서 한국기술자를 너무 많이 만나 해외라는 기분 전혀 느끼지 못하나 보다. 그리고 가히 좋지 않은 기분으로 나온적이 있었다.

욜단에서 예고 없이 만나는 친구는 너무 반가웠다. 中東에서는 술과 배꼽춤이 있어서 돈이 좀 든다는 욜단이라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휴가 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길가의 어린 아이는 용케 필자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아는지 태권도의 흉내를 내었으며 아랍사람들은 등만 쳐도

때리는 줄 알고 놀란다고 한다. 좋은현상이다. 태권도로 국위 선양이 많이되어 있다. 건설하면 한국이라고 그들은 한국인의 부지런함을 부러워 한다. 파키스탄 사람들은 한국 기능공에 비해 임금은 싸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며 또 일이 끝나면 잘 귀국하지 않아 두통이라 한다. 中東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비행기 여비는 적게 들어도 경제적이 못 되지만, 한국건설회사에서도 입찰가격이 낮으면 파키스탄 이나 인도사람을 고용한다고 한다.

우리는 해외에서 배꼽춤과 맥주를 마시려 벤즈 택시를 타고 한국 돈으로 택시 기본요금과 비슷한 거리의 어느 빠로 향했다. 맥주와 땅콩, 등의 콩종류의 안주가 별로 취하게 하지 못했다. 크리스마스 밤을 그 친구와 그것도 7시간의 시차가 있는 율단에서 지낸다는것은 정말 『인샬라』가 아닌가. 2차를 할만한 곳이 없어 호텔로 왔다. 벤즈인데도 옆에 노랗게 칠한 것은 빠스라 우리나라 돈으로 50원 정도의 빠스요금을 받고, 흰칠을 한 벤즈는 택시요금을 받는다. 호텔로 돌아 왔다. 자정이 가까웠다. 서울에 신청한 국제전화가 나왔다. 지구의 반바퀴를 돌며 음성이 선을 타고 아내에게 전해 졌다. 가는 음성에서도 아내임을 알아 내었다. 밤과 새벽의 대화. 사무실은 아무 걱정없었지만, 수금이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나와 있다 한다. 귀국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 한창 설계중에 있는 창원기능대학 종합건설계획은 연기할 수 없고 1月13日에 납품해야 대학에서 건설계획에 차질이 없다고 한다. 다른 일을 못 본다하드래도 년내에 귀국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잠간 들리고 귀국해야 한다. 서울에서 해결할 일이 너무나 많다. 12월31일은 토요일이라 12월30일은 서울에 있어야 수금, 세금봉급이 해결되는 급한 상황이다.

일본에 잠간들려 책을 구입해야 하는 계획은 귀국날짜에 차질을 가져 올 것만 같다. 정말 신에게 맡기는 수 밖에 없다……「인샬라」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친구와 필자는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누구는 어느 해외 현장에 누구는 재미가 좋다든지 지…… 서울 소식과 해외 소식이 하루 밤사이에서 교환되어 좁혀졌다.

검사부인이 30억을 횡령했다는 소식이며, 이리 폭발사고며 누구는 어떤 차를 샀다며 어느 건축사는 부조리로 남이 하는 일을 빼앗아해서 일이 너무많다는 등 즐겁고 슬픈 소식이 친구사이에는 그대로 전할 수 있어 좋았다. 실력보다는 교재를 잘하고 남의 일을 빼앗아야 사무실에 일이 많다는 한국 어느 건축사의 이야기가 오 갈때 즐겁지는 못했다. 해외에서 일을 만드는 한국기술자는 정말 훌륭하다는 것을 느꼈다. 정당하게 실력으로 해외의 일을 외국 선진국과 경쟁해서 따내는 실력은 정말 훌륭했다. 애국자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다.

크리스마스 밤이 그렇게 짧은 적은 예전엔 없었다.

사우디 아라비아 방문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귀국길을 서두면서 계획을 짜려니 너무 무리였다.

다음날 우리 일행은 사우디아라비아 젯다로 향했다.

세계 가이드에 소개된 사우디 아라비아는 다음과 같다

다음호에 계속

물 자 절 약

범 국민적으로 소비절약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 난국을 극복하자.

정부시책의 호응 본회 및 각시도지부 전국회원은 자율적으로 솔선 수범하자.

1. 수입 물자 절약하여 국제수지 개선하자.
2. 근검절약 생활화하여 경제자립 이룩하자.
3. 폐물자 활용하여 국산대체 추진하자.

〈주요시책목표〉

유류 절약 10%
전력 절약 10%
공급 요금 3%
수용비 5%